

비상

2023 하반기 소식지



vol.
90

비상

2023 하반기 소식지



vol.
90

비상

통권90호

편집위원 | 류미숙 원다영 이서운 전영미 최양란

발행인 | 전영미

주 소 | 광명시 오리로 902, 404호(철산동 금산빌딩)

T E L | 사무국 02-2614-7370

상담소 02-2060-0245

F A X | 02-2614-7673

E-mail | kmwhl@hanmail.net

CONTENTS

2023년 하반기 소식지



www.kmwhl.org



litt.ly/km_hotline

01. 목차 및 소개

02. 타임라인

2023년의 활동을 돌아보며

03. 광명여전의 생생활동

25년 광명여성의전화 성장과 변화의 한 해

회원과 함께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향해

연대의파도

배우고 · 나누고

05. 기획기사

22대 총선과 여성정책 _ 강은숙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영화 세 자매가 전하는 세 가지 _ 강은아

06. 회원이야기

회원 편지글

참여 후기

07. 상담 통계

08. 후원

광명여성의전화

S I N C E 1 9 9 8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광명여성의전화는

모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인권운동 단체입니다.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 및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을 통해 해결을 도우며 지역사회와 여성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합니다.

· 상담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 피해자 지원

의료비 지원, 법률 상담 연계, 쉼터 연계, 타기관 연계 등

· 상담 시간

- 평일 9~18시(점심 12~13시)
- 전화상담(9~17시)
- 면접상담(전화상담 후 예약)

· 상담 전화 : 02)2060-2545
02)2616-2545

타임라인

광명여성의전화의 2023년을 돌아보다

23.01.12



사무실 이전 개소식

23.01.12



제25차 정기총회

23.2월/3월



활동가 리더십
강화 워크샵 진행

2/28: 1회차 / 3/14: 2회차

23.03.08



3·8 광명여성의날
행사

23.05.17



국회의원 간담회

5/17 양기대 국회의원
5/25 양이원영 국회의원
6/27 임오경 국회의원

23.05.20



회원의 날
경기여성 DMZ 평화걷기

23.5월~12월



기관 간담회

5/22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6/2 법무법인 정평
6/12 광명시청소년재단
7/19, 12/7 경찰 간담회

23.06.09



은가람빌 업무협약식

23.09.02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10회기 진행

23.09.14~22



양육자 성교육
도민대상폭력예방교육
8회기 진행

23.09.18



'광명시의회 부의장
성비위 사건 조사 및
징계요구' 기자회견

23.11.04



여성폭력생존자말하기



23.04.01

이사진 리더십 강화 워크숍



23.04.25

자문위원 간담회



23.1월~12월

폭력근절 캠페인
폭력근절캠페인은 온·오프라인으로 매달 진행됨.



23.05.05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23.06.22

신입회원 환영회



23.06.27

유관기관 네트워크 간담회



23.7월/9월

회원 소모임 활성화
7월: '충전! 들로 산으로' 시작
9월: 밀담 '양육자 성교육 후속 모임' 시작



23.07.27

딸아들 캠프
도민대상폭력예방교육



23.11.25

성평등타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



23.12.01

여성인권영화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



23.12.14

여성주의 상담 슈퍼비전



23.12.20

25주년 기념식과
회원 송년회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활동에 대해 치하하고 격려하는 시상이 있었습니다. 우수 회원상에 이성숙 회원, 우수 소모임 상에 양육자성교육 후속모임인 '밀담'과 '충전! 들로 산으로(여기가 참 좋다)'가 수상하였고, 광명시장상에 강연채 회원, 박지영 회원, 광명시의회 의장상에 최진아 회원이 수상하였고,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표창장에 소유희 회원, 광명여성의전화는 단체상 시상을 전달하였습니다.

제26차 정기총회

2024/01/23 (화)



회원 76명이 참석하여(참석 42명, 위임 34명)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으로 제26차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의 사업보고와 결산, 2024년의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정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임기총회로 진행되어 새로운 임기의 임원(대표, 이사, 감사)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표이사에 전영미, 이사에 강은숙, 박은, 김삼녀, 소윤희, 최양란, 최진아 이사가 선출되었으며, 허정호 회원이 사업감사로, 권구문 회원이 회계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

2024년에도 성평등한 세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광명여성의전화화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지와 응원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광명여성의전화화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

25년의 시간!

회원과 함께한
광명여성의전화의
시간을 돌아보다



■ 25주년 기념식

2023/12/20(수)

광명여성의전화가 1998년 창립
하여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창립을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선배
회원들과 25년동안 후원과 활동으로
함께 해주신 회원들, 그리고 지역사회
와 연대단체의 많은 지지와 후원이 있
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광명여성의전화는 2023년 12월 20일
에 회원과 함께한 25년의 시간을 돌아
보고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활동을 공유하였
습니다.



■ "헌신과 열정으로 함께한 25주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다짐"



25년 전 창립 준비과정과 초창기 활동 이야기를 전해주신 초대회장 오영숙님과 광명여성의전화와 함께 성장한 감동적인 회원이야기를 이은경님, 최진아님, 이서운님이 나누어 주셨으며, 25년 활동의 기록을 역사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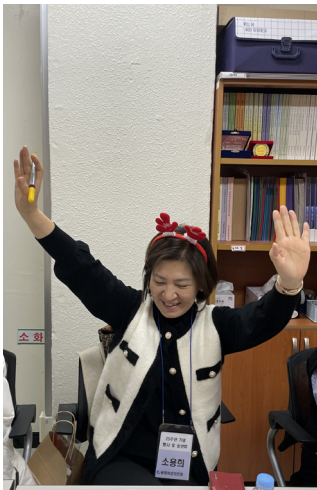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초창기 광명여성의전화 창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우병설님, 오영숙님, 박은님, 강은숙님, 신영옥님께 감사장을 수여하였습니다.



2023 회원 송년회

2023/12/20(수)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던 2023년을 되돌아보며 창립 회원부터 새내기 회원까지 25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30여명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3년 회원 송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한 회원들은 자기소개와 함께 앞으로의 회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신규 회원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광명여성의전화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4년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힘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수상소식



23/09/07(목)

류미숙 소장 양성평등주간 기념 광명시장상 수상



23/09/15(금)

유정원 활동가 제 24회 광명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상 수상



23/12/27(수)

소용희 회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상



23/12/27(수)

본회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우수활동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상

Congratulation!

2023년 12월 06일

(사)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선정!



Gwangmyeong Center Supporting Public Beneficial Activities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소개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명시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광명시가 설립하고 (사)광명여성의전화, 광명YMCA, 광명YWCA가 컨소시엄으로 위탁받아 본회가 대표 법인으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2023년 7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 사업

- 개소식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23.10.24.)
- 공익활동 기반 구축 : 공익활동 홍보기자단 '공익홀씨단', 공익활동 상담소, 공익활동 현황조사
- 공익활동 지원 사업 : 공익활동 홍보지원, 시민참여프로그램, 공익활동 역량강화, 공간대관
-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 : 포럼「공익활동의 가치와 사회적 인정」, 네트워크 간담회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명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https://gmpublic.or.kr/>



회원 소모임

여백모임



광명여성의전화 25년 역사와 함께한 후원 친목 모임

- 후원과 친목, 본회 활동 공유
- 2023년 14명의 회원이 모임 활동
- 매월 1회 모임 : 7/25(화), 8/29(화), 9/25(월), 10/23(월), 11/28(화), 12/26(화)

광연



회원과함께하는 문화탐방!

- 저녁 문화생활을 통한 회원과 활동가의 만남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류하는 모임 진행
- 2023년 7월 7일(금) 회원 및 시민 10명 참석

여기가 참 좋다 (구.충전! 들로 산으로)



여성주의 시사 토론과 함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자연, 명소를 탐방하는 모임

- 치유, 친목, 본회 활동 공유, 명소 탐방
- 매월 1회 모임 : 7/28(금), 8/17(목), 9/20(수), 10/20(금), 11/17(금), 12/20(수)

밀담



'양육자 성평등교육' 후속모임, 23년 10월부터 모임 진행

- 성평등 관련 이슈 나눔과 수다(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시청 후 토론)
- 모임원 : 9명
- 매월 1회 모임 : 10/13(금), 11/10(금), 12/8(금)

딸아들 캠프 성적자기결정권, 그게 뭔데?



‘도민대상폭력예방교육 딸아들을 위한 성교육 캠프’(이하 딸·아들 캠프)가 7월27일 목요일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광명시평생학습원 청년어울림실에서 초등학생 5-6학년 27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전 과정 참여 프로그램 모듈활동으로 1. 여는 강의, 2. 성역할고정관념 3. 디지털에티켓 4. 평등한 연애 4회차로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딸·아들 캠프는 참여자들이 게임과 조별활동에 참가하여 서기나 발표 순서를 스스로 정하는 등 자율적이고 유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적자기결정권을 방해 한다’,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행동도 성폭력이라는 걸 알았다’ 는 등의 멋진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즐거움 배움!
올바른 성 이해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성역할 고정관념과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인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성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관점의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장애인, 어린이집 교사,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대상을 찾아가서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2023년 한해 199회 진행, 3,261명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의 활성화와 지역 내 폭력방지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경기도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유공자 포상에 소용희 전문강사가 개인 표창장을, 본회가 단체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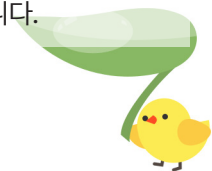
양육자 성교육 '사춘기, 그게 뭔데?'

도민대상폭력예방교육 양육자를 위한 성평등 교육은 2023년 9월 14일, 15일, 21일, 22일, 4일간 8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100명이 참여하여 강의와 토론으로 성평등교육에 대한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에 대한 인식점검, 젠더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아동의 사춘기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자신의 감수성을 점검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알게 된 후 다양한 교육과 대화할 사람들에 대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었다',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 기회가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성평등에 가까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춘기 자녀의 성교육에 대해서 들으러 왔다가 나의 젠더 감수성을 자극받고 간다' 등의 후기를 남기며 교육에 대한 큰 만족감을 남기셨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후속모임을 만들어 총 9명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밀담(密談): 남몰래하는 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현재까지 매달 1회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이 곳에서 만큼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 불인 이름인 만큼 더 자유로운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폭력근절캠페인



매월 진행되는 2023년 하반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7월에는 디지털성범죄와 2차가해 용어 개선 주제로, 8월에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스토킹방지법 시행안을 주제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9월은 양성평등주간기념으로 성평등한 추석 만들기를 주제로 광명시청에서 OX퀴즈 및 구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0월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시간에 철산역 인근에서 디지털성범죄 및데이트폭력 인식개선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11월에는 가정폭력 생존자말하기 행사와 연결하여 가정폭력 실태를 알리고 공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12월에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 캠페인으로 게더타운 및 여성인권영화제 행사와 연결하여 지역사회에 세계여성폭력추방주인과 여성폭력 개념에 대해 알렸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2023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9월 중 토요일에 10회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의 이해, 여성의식 강화와 자존감 향상 훈련, 갈등관리와 자기주장 훈련, 현실치료, 댄스 테라피, 미술치료 등 다양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여성폭력을 여성의 시각으로 재조명해 자신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정서적 안정 및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역량을 강화하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후 피해자들이 자매애를 느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지지자 역할을 하며 노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만들어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생존자말하기



"마음대로,
점프!"



11월 04일(토) 오후 3시 광명극장에서 가정폭력생존자들이 직접 만든 문화공연 '마음대로, 점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음대로, 점프!'는 광명여성의전화 주관으로 개최되는 여성폭력생존자말하기 행사로 광명시성평등기금사업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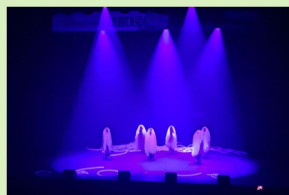
가정폭력생존자들이 직접 만든 문화공연 프로젝트 '마음대로, 점프!'는 가정폭력생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에서 2019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 하고, 그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지지 받을 때 더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음대로, 점프!'는 시작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녹아든 노래와 춤을 통해 다른 생존자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가정폭력을 방관하고 용인한 사회에 변화와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공연은 미리 관람신청한 지역의 유관기관 및 많은 광명 시민들이 참석해 가정폭력생존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내는 불굴의 용기를 보며 희망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안무가 장은영이 연출 그리고 정민아가 음악을 맡았으며 1부에는 총 6명의 가정폭력생존자가 출연하여 창작무용과 자작곡을 선보였습니다. 2부에서는 출연자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진행되어 생존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광명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여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폭력예방을 위한 성평등인식 확산을 위하여 매년 여성폭력생존자말하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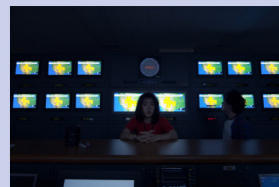
여성인권영화제 “틀을 깨다”



2023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12월 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2023 광명여성 의전화 여성인권영화제 “틀을 깨다”가 190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광명 여성시민의전화 여성인권영화제는 올해로 16화째를 맞이하는데 다양한 여성인권 영화를 통해 여성폭력 문제와 불평등을 드러내고, 성평등 인식과 담론을 확산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1부는 개막식과 비올라 앙상블 축하공연, 단편영화 2편이 상영되었고 2 부는 ‘두 사람을 위한 식탁’ 장편 1편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3부는 단편영화 4편을 상영 하여 여성의 시각으로 ‘틀을 깨는’ 영화제가 되었습니다.

‘틀을 깬 여성작가 도서전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캠페인’, 레드카펫, 포토존에서 사진촬영 등 다 양한 부대행사에도 참여하였는데요, 시민들은 “재미와 감동과 느낌이 있다.”, “심금을 울리는 비올라 연주와 분위기가 감동적이었다.”, “영화선정이 탁월했다. 영화제 진행구성(축하연주-영화소개-관 람-관객과의 대화)도 좋았다”, “영화관람 전 해석 또한 영화감독의 의도를 이해 할 수 있어 좋았다”, “레드카펫, 포토존을 설치하여 영화제에 초청받은 기분이었다.”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게더타운 '성평등타운'



◀방문하기!

2023년 세계여성폭력추방주년을 맞이하여 11월 25일(토) 게더타운 '성평 등타운'이 개장되었습니다. 개장에 앞서 11월 23일(목) 시민과 회원을 대 상으로 메타버스 게더타운 이해 및 활용 교육이 열렸으며, 11월 28일(화) 오전 10시 개장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게더타운은 공간의 제약없이 언제든 지 방문 가능한 온라인상 구현된 메타버스 타운입니다. 성평등, 인권에 대 한 흥미롭고 다양한 콘텐츠, 정보를 게임으로 배우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두와 함께! 게더타운 '성평등타운'에서 여러 방문자 들과 함께 모여 성평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세요~!



연대의 파도

광명시의회 성비위사건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진행



- 9/18(월) 진행
-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연대, 성명서 발표, 피해자 지원, 시의회 진상조사 및 윤리위원회 재소, 피해자 보호, 성폭력·성차별 예방 시스템 마련, 가해자 처벌·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10/13(금) 진행
- 여성가족부 2024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120억3천3백만원 삭감
- 여성폭력피해자지원 현장 단체들이 공동행동 결성 국회 본관 앞에서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진행

경찰 간담회



-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광명경찰서 간담회 2회 진행
- 7/19(수), 12/7(목) 진행
- 피해자 상담소 연계 등 지원 체계 간 협조사항 논의 및 젠더 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지원을 위한 의견 교류, 피해자 중심 및 여성주의 관점으로 초기 대처 방안 및 사후 관리의 방향 논의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가노르구 유아교육기관장 방한 연수



- 10/26(목) 진행
-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가노르구 교육장님과 유치원 원장님 총 15명이 광명여성의전화를 방문 한국의 여성인권과 상담복지현장, 본회 사업에 대해 소개함.

배우고 나누고

■ 활동가 소진방지 워크숍

- 상담활동에 대한 소진을 방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진행
- 문화활동, 힐링 프로그램, 지역 유관기관 탐방 및 교류
- 7/7(금), 8/3(목), 12/27(수) 문화체험,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견학, 구름산 산림욕장

■ 내부 활동가 학습

- 활동가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준비하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가학습 진행
- 매월 1회 진행
- 7/30(월) 가정폭력 관련 법률 이해, 8/28(월) 스토킹 관련 법률 이해, 9/2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해, 11/27(월) 성폭력 관련 법률 이해



구름산 산림욕장에서



■ 여성주의 상담 슈퍼비전

- 12/14(목) 오후 1시 진행
- 이미혜 여성주의상담 슈퍼바이저의 지도로 활동가 3명이 슈퍼바이저로 참여
- 여성주의 상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여성주의 관점에 따라 상황별 문제 해결력을 확장, 상담 방법, 기법 점검 및 전문성 강화



여성주의 상담 슈퍼비전!



22대 총선과 여성정책



강은숙

송실대글로벌HRD연구소 연구교수

곧 치러질 총선에서 젠더정책을 의제화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여성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작년 9월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발표 토론회>를 주최하여 '총선 젠더정책'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서 12월 12일(화)에는 국회 앞에서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UPPER)’ 출범 기자회견이 있었다. 여성연합이 주관하여 제안한 총선 젠더정책은 크게 ① 돌봄·기후정의 실현 ②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③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④ 젠더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 ⑤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⑥ 평등하고 정의로운 젠더관계를 위한 사회문화 조성 등 6개 영역으로 분류되고, 각 영역에 여러 정책이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 중 22대 국회에서 주력해야 할 핵심 젠더정책 24개를 제시하였는데 본 글에서는 특히 눈여겨보고 실현해야 할 과제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본다.

1. 강간죄 구성 요건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현행법에 따라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가 반항을 못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강간은 심각한 성폭력이다. 일반적인 폭력에 비해 폭력 앞에 ‘성’만 들어가면 잣대가 달라진다. 일반적인 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폭력 정도나 수위 등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의 주요 잣대가 된다. 그에 반해 성폭력은 피해자의 대응 여부나 정도가 중요 잣대나 기준이 되고 있고, 강간죄는 그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된 현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법의 목적이 피해자의 인권 보장이 아니라 ‘가정 보호’로 되어 있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있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법의 개정도 오래 전부터 요구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2. 성평등 공시제도

성평등 공시제도는 기업이나 조직 차원의 성별 격차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성평등 공시제도는 ① 성별 임금 정보 공개 ② 임금정보공개청구권 ③ 성평등 공시 후속 절차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이 중 성별 임금 정보 공개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성평등 공시제도를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또는 성별 임금 공시제도로 부르기도 한다. 성별 공시제는 프랑스나 독일 등의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기업



이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2019년부터 남녀평등지수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임금격차, 임금상승률, 승진지수, 출산휴가 후 복귀한 여성 근로자의 임금 인상 지수, 임금 순위 TOP 10명 중 여성 근로자 수 등의 남녀평등지수를 자사 홈페이지와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남녀평등지수가 75점에 미달하는 기업은 지수를 공개할 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임금정보공개청구권 관련해서 독일은 2017년부터 2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 임금 정보공개 청구권을 개인적·조직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동일한 직무에서 동등한 성과를 냈는데도 다른 성별의 동료 최소 6명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이면, 노동자는 임금산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평의회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성별 공시제도는 임금 뿐 아니라 모집과 채용, 승진, 배치, 임원 구성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차를 완화, 개선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므로 보다 많은 기업과 조직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현재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여성가족부가 아직 폐지는 되지 않았지만 각종 여성정책과 관련 예산이 축소되어 정부의 성평등 사업과 정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하거나, 공원에서 강간살해 당하기도 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현재진행형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 수준인 성별임금격차(31.5%), 높은 유리천장 지수와 고용격차(16.9%), 이사회 구성(여성비율 4.8%)의 성별 불평등이 여전하다 박선영 외(2023). 성평등을 향한 여정-여성차별금지와 성평등실현의 역사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이러한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인력·예산·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나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설치와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영화 <세 자매>가 전하는 세 가지 장면



강은아
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
문화공간CPR 대표

“(함께 출연한) 김선영, 장윤주, 저 모두 딸이 있는데 ‘세 자매’는 우리 딸들이 폭력의 시대, 혐오의 시대를 넘어서 당당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영화이다. ‘세자매’가 이 땅의 모든 딸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배우 문소리의 청룡영화상 수상소감 중에서

장면 1- 여성 배우에게 여성 서사를 허하라

영화 <세 자매>는 흥행 영화의 관례적 패턴과 달리 작금의 문제를 폭로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역할을 여성들에게 부여한 여성 서사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각자의 트라우마를 애써 덮어두고 자해, 종교, 술 등에 의존하며 삶을 부지하는 착잡한 현실을 더러는 코믹하게 더러는 극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절대 권력의 가부장적 가장은 외도로 낳아 무책임하게 버려두었던 두 아이를 데려온다. 어머니에게 집 중되던 아버지의 주취 폭력은 태어난 죄 밖에 없는 자녀들에게로 확대된다. 희숙(김선영 분)은 환영받지 못한 방식으로 태어나 갑자기 한 가정에 끼어들게 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모든 불편한 상황의 원인이라 여긴다. 죄책감속에서 성장하여 ‘미안하다’, ‘내가 거지같다’를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산다. 상대를 살피며 눈치를 보고 허허로운 웃음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자신을 감추고 외로움의 성에 스스로를 유배한다.

장녀로서의 9살 인생에 갑작스러운 새 혈육의 출현으로 둘째가 된 미연(문소리 분)은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다른 혈육을 구해내지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쳤다는 자책과 책임감으로 삶이 무겁고 단호하다. 교수 남편과 착한 아들 딸을 두고 신도시의 52평 아파트를 배경으로 교회 집사와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는 독실하고, 교양있고, 이상적인 모습을 가식적으로 연출하지만, 내면은 피폐하다. 꾸며진 겉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냉정하고 파괴적일 수 있다. 과한 책임감과 경제력을 밑천으로 K-장녀의 역할을 기꺼이 맡아 상담사와 해결사 노릇에 숨이 가쁘다. 남몰래 베게에 얼굴을 묻고 괴성을 지르거나 토해지지 않는 심호흡과 머리를 흔들며내는 동작으로 견뎌낼 뿐이다.

배다른 남동생에게 막내로서의 위치를 넘겨준 셋째 미옥(장윤주 분)은 애정 결핍과 자책의 굴레를 아무 것도 모르는 너무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무의식속에 밀어놓고 면피하고자 한다. 가부장적 위계와 질서를 전도시키고 억압과 고정관념과 편견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실상은 제멋대로 구는 철부지 알콜 중독자다. 의붓 아들에게는 공감 능력과 배려없는 부끄러운 ‘돌아미’ 새엄마로 인식된다. 스스로가 자신을 ‘쓰레기’라고 얕잡은 말을 하지만 실은 예술가의 자의식과 작가라는 허명으로 버티고 있다.

장면 2 - 무방비한 뒷 모습의 메타포

영화 <세 자매>는 정직하고 무방비한 뒷 모습의 메타포를 극대화한 영화다. 영화에서의 뒷 모습은 인물들의 시간적 뒷 모습이라 할 과거를 환기시키는 장치가 된다. 오늘의 앞 모습이 있기까지의 과거

의 상처들을 질문하고 행동과 성격의 원인을 짚어보게 하며 관객의 공감과 감정 이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영화의 오프닝은 불안정하게 명멸하는 달빛 조명을 향해 뛰어나가는 두 소녀의 흐릿한 뒷모습을 보여준다. 불빛을 향해 파다파다 뛰어나가는 작은 어깨와 등과 발걸음들이 핸드헬드 샷(hand-held shot, 들고 찍기)으로 불안하게 포착된다.

첫 시퀀스 역시도 희숙의 뒷모습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잡아낸다. 도시 철길 건널목의 빨간 차단기와 굉음을 내며 뺑뺑 지나가는 기차들이 미장센을 강화하면서 고전 트롯트 음악 ‘여자의 일생’ 류의 신파적 불행으로 가득한 희숙의 삶을 예상하게 한다. 이어지는 미옥과 미연의 인물별 시퀀스에서도 뒷모습의 클로즈업은 반복된다.로우 앵글로 포착되는 미연의 어깨와 등은 부풀어오른 모래산처럼 스크린을 가득 채우며 짙어진 책임감의 무게를 부각시킨다.

장면 3 - 미안하다고 사과해 달라는 간절함



영화는 세 자매의 평범하고도 한편 왜곡되고 뒤틀린 일상을 번갈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아버지의 생일잔치의 극적인 암전을 위한 빌드업(Build-up)을 해 나간다.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인 아들 진섭(김성민 분)이 아버지를 오죽으로 응징하는 것을 기점으로, 더 정확히는 미연이 세습된 폭력을 ‘아버지의 눈빛’으로 시연할 때 봉인해 놓았던 상흔들이 터져 나온다. 둘째 딸은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사과하라’고 고함치고 손녀딸은 ‘어른들이 왜 사과를 못 하나’며 할아버지를 호명하며 사과를 재촉한다. 가부장(할)아버지는 유리 창문에 머리를 쿵쿵 찡어 피를 흘리고 긴 그림자들을 머금은 뒷 모습들이 강력한 페이드아웃에 잠긴다. 각본과 연출을 맡은 이승원 감독은 “잘못한 일에 대한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진 아픔이 미래로 전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에서 출발”한 영화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간절함이 앞서다 보니 영화는 전반적으로 캐릭터가 과잉되거나 표현이 거칠고 결말은 안이하다. 배우 문소리, 김선영, 장윤주의 막상 막하의 한 판 승부와 같은 호연의 앙상블 속에서 웃다가 울다가 킁킁대다가 혀를 차고 분개했다가 감정의 널을 뛰게 하는 영화다. 바닷가에서의 평화로운 마지막 시퀀스가 선사하

는 따뜻함을 받아들이고 아쉬움이 남는다. 할 말이 많은 영화이지만 지면의 한계상 마무리하며 사족으로 한 마디를 덧붙인다.

불륜녀로 아쉽게 소비된 성악과 출신의 뮤지컬 배우 임혜영이 찬송가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과 삽입곡으로 쓰인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찢어버릴까’라는 엔딩곡이 한동안 귓전에 맴돈다는 사실이다.





회원이야기



사랑하는 나의 친구 양란아!!

최진아 회원

6년 전인가 내가 사람에 대한 상처로 많이 힘들어할 때 나를 광명여성의전화로 이끌어준 나의 짝 친구야!!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친구인 너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내가 참 자랑스럽단다. 광명여성의전화 활동가였던 내가 추천해 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나의 상처마저 치료해 주었다.

우리 같이 참여하며 내가 회복된 거 너도 기억하지?

그날 이후로 나는 광명여성의전화를 내 집 마냥 편하게 놀러 다니며 여성주의에 눈을 뜨게 되고 내 안의 가부장성을 알게 되며 깨어나기 시작했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공부할 때는 사회에 분노하게 되었고 이제는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힘도 생긴 듯 해.

40년 동안 내가 알고 있던 페미니즘은 과격하고 세고 강한 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막상 내가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나니 가부장적이었던 우리 사회와 언론, 미디어와 싸워 이겨내야만 했던 깨어있는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결국 잘못 알고 있던 내 고정관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난 나의 깨어남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까지 되었다. 활동가로 나보다 먼저 깨어있던 네가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지금이라도 깨어난 내 자신이 정말 멋지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단다. 나 한 사람이 여성주의에 눈 뜨고 가부장성으로부터 깨어났지만 나같은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난다면 더 많은 내가 될 수 있으니 나 하나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를 광명여성의전화로 이끌어준 친구가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나의 작은 손길을 고마워해주고 격려해주는 광명여성의전화 활동가들을 보며 내가 지금까지 함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아말로 광명여성의전화의 최대 수혜자가 아닐까 생각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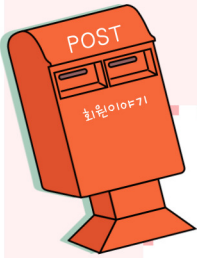
나를 필요로 해주는 우리 광명여성의전화 동지들!!

앞으로도 전 계속 깨어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쭉~~욱 가요~~!!

여전히 깨어있고 싶은 너의 친구가





광명여성의전화의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서윤 회원

25년 전, 한국의 여성인권은 2023년 현재와 매우 달랐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동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인식의 변화의 결과로 저를 비롯하여 새로운 세대의 여성들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고 도움을 주는 헌신에 감사합니다.

어려움에 귀를 닫는 세상에서 지원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내어주는 이 분들의 숭고한 정신에 깊은 영감을 받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옹호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 때로는 자신의 편안함까지 기꺼이 희생하시는 단체의 일원이 된 것이 뿌듯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25년 동안에도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여성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 나가는 광명여성의전화의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참여 후기

양육자를 위한 성교육..... 최재연 회원

저는 2023년 양육자를 위한 성교육에 참여한 쪼안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를 위해 내가 잘 배워 놓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교육을 듣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성을 위한 단체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정도의 가벼운 마음이었지요. 첫번째 교육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길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성교육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는 세대이기에 교육 시간에 들은 내용들의 유익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내용들이 성평등적,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반가웠거든요. 저는 30대 끝자락 불과 몇 년 전, 기혼의 유자녀 여성이 되어서야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죠. 주로 온라인으로 마음 맞는 사람들을 찾아 공부해왔는데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이런 교육이라니, 정말 보물 같은 기회였어요. 교육 막바지에 교육을 진행해주신 강사님과 활동가 선생님이 후속 모임을 말씀하셨을 땐,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성주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만나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는 것이 꿈만 같았지요. 저의 예상대로 후속 모임에서는 그동안 가까운 지인파도 터놓고 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솔직하고 안전하게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삶의 큰 활력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모임 '밀담' 에서 나누게 될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최혜선 회원여성인권영화제

마음먹고 1부부터 3부까지 모든 영화를 보자는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세계여성폭력주간 기념으로 “틀을 깨자” 라는 부제에 딱 맞게 상영된 7편의 영화는 나와 가족을 돌아보게 되고,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원래 그랬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지만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을 콕집어 함께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여성이라는, 성별차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임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지지하고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용기는 함께 할 때 가능하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며 또 함께 연대하여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영화 준비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하반기 상담통계

구분	총계	가정폭력	성폭력	그 외 상담								
				소계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	성상담	가족문제	기타
7월	244	192	37	15	0	4	0	6	1	1	1	2
8월	353	231	69	53	5	12	2	9	3	0	10	12
9월	250	170	60	20	4	3	1	2	0	0	5	5
10월	252	159	63	30	1	7	0	6	2	1	7	6
11월	239	174	41	24	3	1	0	7	5	0	2	6
12월	262	182	58	22	0	3	0	8	2	2	3	4
2023 총계	2,445	1,768	429	248	13	61	8	40	17	6	39	64

후원 안내

광명여성의전화는 회원들의 회비와 참여로 운영됩니다. 일상 속 여성주의 실천 미 여성 인권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CMS 회비 납부를 신청하세요! 출금일은 매달 25일이며, 통장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달 10일에 소급되어 출금됩니다. 후원금은 법인 세법 18조,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차별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광명여성의전화와 함께해주세요!

- 후원계좌 : 농협 099-01-018-174
- 후원관련문의: 사무국 02-2614-7370





2023년 후원자 명단

가문홍 강미숙 강미자 강연재 강은숙 강은아 강은희 강정아 강주례 강희정
고성수 고은정 곽 온 권구문 권민경 권예성 권용주 권윤자 권은미 권태웅
권태진 기동성 기애란 기희숙 김건희 김경미 김경혜 김경희 김기남 김기윤
김덕례 김도하 김명숙 김미경 김미화 김삼녀 김성경 김성자 김세경 김세일
김소미 김수연 김수영 김승옥 김영숙 김영일 김영자 김영환 김예지 김옥희
김용진 김윤숙 김은희 김재석 김지숙 김지오 김진필 김학운 김해중 김현미
김형석 김혜경 김혜정 김효은 남천희 노용래 류미숙 문현희 박경옥 박니나
박동파 박미경 박미라 박미정 박보경 박상봉 박성숙 박성은 박 순 박애란
박영신 박옥화 박은경 박인숙 박재한 박종기 박지영 박창호 배명옥 배옥순
서기남 서성민 서영심 서유리 서현우 소유희 송은서 송진성 신경순 신서연
신성은 신영선 신윤철 신준옥 신현정 신효경 심중식 안경화 안근영 안보미
안수진 안인숙 안춘매 양윤정 양이원영 엄선민 엄지연 엄건령 오성희 오세임
오영민 오화선 우옥남 원다영 원범재 유명자 유서연 유성희 유영미 유재성
유정원 윤미리 윤복희 윤순희 윤창미 이건실 이경희 이다연 이다현 이동화
이미경 이미주 이미혜 이보용 이상진 이서윤 이선미 이선숙 이성숙 이연주
이수지 이수지 이숙영 이순덕 이순례 이승부 이승휘 이연숙 이연숙 이연주
이영미 이영희 이은영 이은혜 이인숙 이인희 이정민 이종기 이지은 이진영
이형덕 임무자 임삼례 임선희 임송희 임수진 임영숙 임영주 임홍석 장경애
장명숙 장명애 장봉환 전근배 전미라 전상만 전선미 전영미 전은숙 전점중
전종호 정경선 정미향 정상희 정순옥 정애숙 정연순 정영애 정지선 정형선
조금선 조옥순 조현제 조희정 조희진 지미선 진수경 진영임 차미경 최금숙
최미선 최미영 최양란 최재연 최진아 최혜선 최효정 하숙례 한국현
한미경 한은진 허경숙 허윤정 허정호 황소영 황은영 황재훈 황정환
지에스코리아(주)



2023년 하반기 신입회원 명단

강은희 강정아 기동성 김미현 김성경 김성하 김소미 김승옥 김영환 김옥희 김준진 박경옥
박동파 박성영 박 순 박창호 서현우 설유진 송진성 신영선 안근영 안보미 안춘매 오성희
원다영 유재성 윤창미 이경희 이서윤 이영희 이정민 이종기 이하나 임홍석 장명애 장봉환
전상만 전종호 조금선 조은정 지에스코리아(주) 최재연



하반기 물품후원 명단

-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쌀 40kg 30개, 식품꾸러미 20개)
- 한국여성의전화(하떡 100개)

비상하라! 여성의 힘!

"광명여성의전화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 404호(철산동 금산빌딩)
- 전화번호 | 031-442-5385
- E-mail | kmwhl@hanmail.net
- 홈페이지 | www.kmwhl.org